

개혁주의 신학이 서구 문화에 미친 영향

이 보 민
(고신대 교수)

개혁주의 신학이 서구 사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었던가를 생각해 보기 전에 먼저 개혁주의 신학이 무엇인지 알아볼 것이다.

1. 개혁주의 신학이란?

종교 개혁 당시의 여러 가지 신학의 유형들을 우선 살펴보고 개혁주의 신학의 본질을 알아보자.

우선 종교 개혁의 신학은 마아틴 루터에 의해 점화되어진 反司祭主義적인 사상에 입각한 신학이라고 하겠다. Luther는, 종래까지는 단지 사제들에게만 적용되던 소명(召命)의 개념을 전교인들에게로 확대하여 모두가 사제라고 하는 소위 만인 사제설을 주창하기에 이르렀다. 이것은, 사제의 개념을 새롭게 재해석하여 종래에 특수한 신앙적 계층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던 것을 이제 모두에게 적용하게 된 결과였다.

그러면 본래 사제란 어떤 특성들을 지니는 자들이고 그런 사제에 대해 루터가 재해석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그들은 금욕생활을 하는 자들이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자들

이고, 끝으로 남을 위한 중보의 기도를 행하는 자들이다. 이 세 가지 특성들이 특정 신앙인들에게만 적용되는 줄 알았었는데, 루터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으로 재해석했다. 우선 첫번째의 금욕의 문제는, 결국 모든 기독교인들의 세속적인 세상을 보는 세상관의 문제로 재해석될 수 있고, 두 번째 성경 이해의 문제는 신앙인의 신 인식에 관한 문제, 즉 계시관의 문제가 되겠고, 세 번째 중보의 기도 문제는 교회관의 문제로 보아진다.

그런데 여러 유형의 종교 개혁 신학들은 바로 이 세 가지 점에 있어서 의견들을 약간 달리하면서 나타났던 것이다. 우선 계시관에 있어서 중세 로마 교회는 평신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알 수 없도록 만들었는데, 이것은 교회가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한 결과였다고 비판하면서, 인간의 이성능력을 상실치 아니하였고, 오히려 합리적으로 신의 계시를 이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하는 신학자들이 나타났다. 이들은 대개 에라스무스의 인문주의 사상에 감명을 받은 자들로서 Michael Serretus, Faustus Socinius 등인데 합리주의적 르네상

스 정신에 충실하여 중세 교회를 거부할 뿐 아니라 성경적인 바른 계시관까지도 배격하는 자들이었다.

이들 합리주의자들의 세상관도, 세상은 각자가 자신의 합리성을 발휘하여 살아가는 장소라는 것으로서 바른 합리적인 사고를 할 때 그가 교인이든 불신자이든 하나의 사회를 이루면서 그 속에서 함께 살게 된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기존 사회 질서를 때로 비판하기도 했으나 그것을 무조건 비판의 대상으로만 삼지는 않았다. 그리고 이들의 교회관은, 특별한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인정하지 않는 방향이었다. 결국 인간은 각자가 스스로 기독교인이 될 뿐이지 교회의 일원으로서의 교인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이와 같은 합리주의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를 말하는 영감주의자들(inspirationists)도 나타났는데, 합리적인 이성을 통한 냉정한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다분히 감정을 통한 격정을 강조했다. 대표격으로 토마스 뮌쩌(Thomas Müntzer)를 생각할 수 있는데, 이들이 가지는 세상관은 신자들이 다른 사람에게 대해 감정적 차원의 동정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기존 사회를 비판하여 개선해 나가는 장소가 곧 세상이라는 입장을 갖는다. 이들의 교회관 역시 대단히 부정적이다. 믿는 자들만으로는 공동체라는 교회관은 성립하기가 힘들다. 그러므로 이들이 염두에 두고 있는 인간 상호간의 감정적인 유대

감(solidarity)은 교인으로서의 유대감은 아니라고 하겠다.

지금까지 합리주의자들이나 영감주의자들이 잘못된 계시관, 세상관, 교회관을 가지고 있음을 보았다. 이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성문계시로 바르게 신앙해야 함을 강조하는 건전한 계시관에서 출발하는 종교 개혁의 신학이 있었는데, 이 신학을 대표하는 자가 마르틴 루터(Martin Luther)였다. 신자들이 이성만으로도, 감정만으로도 아닌 전인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신앙하게 될 때에, 이들에게 있어서의 세상은 곧 그들이 그 속에서 생활하면서 신자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장소가 되는데, 그렇다고 그들이 그 세상과 하나가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 곧 루터의 입장이었다.

한편 그에게 있어서의 교회관은, 기독교인들이 각자 독립된 신앙인들이면서 동시에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 교회를 형성한다는 것이었다. 그 교회 공동체가 사회 속에서 오히려 세속과 분리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속에 속해 있는 교인들은 동시에 개인적으로 세속 국가와 사회의 구성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이들은 모두 교인으로서의, 동시에 국민으로서의 이중적인 윤리를 따르게 된다. 교인이 이런 이중적 윤리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아니하는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교회는 중생한 자들의 “우편 왕국”인데 비해 세상은 타락한 인간들의 “좌편 왕국”이기 때

문에 교인이 국가와 교회를 상호 일치시켜서 하나의 윤리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원리적으로 또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임을 시인한다.

루터는 자연히 기존 사회에 대해 한편 부정적이면서도 그 사회에 대해 타협하는 입장을 취하는데 이유는 교인들도 바로 그 사회 속에서 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동시에 루터는 기존 교회(천주 교회)에 대해서도 부정적이면서 한편 긍정적인데 그런 잘못된 교인들도 때로는 보이지 않는 참된 교회(불가견적 교회) 속에서 “우리”와 같은 교인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진다.

그에 비해 소위 스위스에서 일어난 재세례파(anabaptist)들은 루터와 유사한 바른 계시관에서 출발하면서도 세속에 대한 견해와 교회에 대한 입장에 있어서 루터와는 다른 입장을 갖는다. 이들의 주장은, 루터의 종교 개혁이 세속에 대해서나 교회에 대해 완전한 개혁이 아닌 절반 정도의 개혁을 이루었다는 점이다. 즉 세속 사회도 하나님께서 허락해서 존재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불신자들의 악한 행위를 제어하고자 하는 목적과 신자들을 안전하게 지켜주고자 하는 목적을 갖는 것일 뿐이라고 한다. 교인들은 참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살면서 세상과는 대면만을 하고 살고 있다는 입장이다. 교인들은 완전히 타락한 인생들의 공동체인 국가 속에서 동화되거나 타협하면서 살 수는 없다. 즉 국

가는 교인들을 결코 컨트롤할 수 없다. 교인들은 교회 속에서 교회 밖의 국가를 보면서 그 국가 속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됨을 다짐한다고 하겠다. 그러면서도 교회 속의 교인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만큼 국가에 대면하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 재세례파들은 기존 천주교에 대해서도 과격한 개혁을 주장하면서 천주교 내의 hierarchical한 교회 정치 구조를 배격한다. 그럴 때 그들의 교회란, 모두가 형제 자매라고 하는 소위 형제 교회의 형태를 취하는 것이고 교회 내의 공동체 생활이 곧 그들의 일상 생활에까지도 그대로 이어진다. 이런 교회관을 가지고 천주교를 완전히 배격하면서 천주교 안에 있는 어떤 교인도 참된 불가견적 교회의 교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 천주 교회에서 나와서 다시 세례를 받아 형제 교회의 형제 자매가 될 때만이 참된 교인이 되는 것이고 그런 뜻에서 이들 재세례파들은 “불가견적 교회”라는 개념을 배격한다.

이제 이들 신학들과 유사하면서도 특징이 있는 개혁주의 신학을 보자. 이 신학은 칼빈의 가르침에 많이 의존하는데 계시관에 있어서는, 인간은 철학적 이성이나 미학적 감정에 의존할 것이 아니고 성령에 도움 받으면서 성문 계시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면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인은 물론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면서도 사회 속

에 살고 있다. 교인은 사회에서 신자로서의 진실된 소명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 따라서 금욕이란 모든 교인들이 세속 사회 속에서도 교인으로서의 생활을 진실되고 열심히, 합리적으로 살아 드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애쓰는 모습이 된다. 또한 교회관은, 신자들은 각자 독립된 교인들로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신앙적 공동체를 이룬다는 견해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신앙적 공동체로서의 교회에 속해 있는 교인들은, Luther의 생각에서처럼 동시에 세속에 속해 있는 것이며 세속 역시도 하나님께서 타락 후의 인간을 지키며 Contral 하시기 위해 국가라는 공동체를 이루심으로 인해 유지된다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개혁주의 신학은 재세례파의 국가관과는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고 루터와는 가깝다고 하겠다. 그러나 개혁주의 신학은 국가나 사회를 루터에서처럼 하나님의 소위 "좌편 왕국"이라고 보기를 거부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세속에 대한 주권적인 통치를 지나치게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은 세속 국가와 교회를 둘 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는 동질의 것으로 보고자 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이 사실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바로 이런 점이 개혁주의 신학의 국가관을 오해하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개혁주의 신학이 국가와 교회를

다른 두 가지 왕국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서 천주교 신학에서처럼 교회와 국가를 같은 본질로 취급하는 것은 아니다. 천주교 신학에서는 국가나 교회를 공히 인간의 타락 전부터 있어 왔을 기구들로 여겨서 국가는 언제나 인간의 육신과 관계되고 교회는 인간의 영혼과 관계되어 육신과 영혼이 상하 구조를 이루는 것처럼 국가, 교회가 서로 상하 구조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개혁주의 신학은 국가와 교회를 천주교 신학만큼 동질로는 여기지 아니한다. 즉 오히려 Luther와 비슷하게 교회만을 타락 이전에서부터 있어 올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도 있는 기구로 보고 국가는 인간의 타락 때문에 유래된 기구, 즉 그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거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없는 임시적이며 비본질적인 기구로 여긴다. 그러면서도 Luther와는 달리, 교회와 국가를 전혀 다른 "왕국"으로 봐서 두 개의 왕국 속에 동시에 속해 있는 기독교인은 두 개의 윤리를 지니면서 사는 者라는 생각을 거부한다. 그렇다면 개혁주의 신학은 교인들이 동시에 교회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똑같은 생활의 윤리로서 국가 속에서 국가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무슨 의미인가?

교인들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으로

참된 교회를 이룰 때 그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될 것이지만, 교인들이 국가를 어떤 특정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태로 그 system을 도입해서 이루기만 하면 그 국가가 곧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된다는 생각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 인간이 이룩하는 국가의 형태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국가를 기뻐하시게 된다는 생각은 천주교 신학의 입장이지 개혁주의 신학은 아니다. 우리 인간들은 구체적인 형편 속에서 어떤 형태의 국가를 하나님이 기뻐하실지는 알 수 없다. 단지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세상의 국가에서 당신의 기쁨을 찾고 계실 뿐이다. 물론 대개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사는 정신과 방법에 따라 국가 내에서 열심히 살아서 그와 같은 모습이 모든 국가 내의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식의 국가의 형태가 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볼 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일 뿐이지 장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아울러 개혁주의 신학의 교회관 역시 Luther의 것과 유사하면서도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기구이어야 함을 좀더 강조하고 있다고 하겠다. 천주 교회가 교황 중심 제도로 하나님을 언제나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을 바로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재세례파가 행했듯이 외형적인 제도가 없어진 교인들의 단순한 형제적인 상황 공동체가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보지

아니한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결여되기 쉽다는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교회의 외적인 제도 문제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유보하는 루터와는 달리 개혁주의 신학은, 교회는 교회 제도적으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데 그 제도는 인간의 다스림이 배제되는, 그러면서도 그리스도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당회 중심의 장로 제도여야 한다는 것이다. 참된 교인들은 모두 이러한 바른 교회를 이루면서 바른 교회에 속해야 한다는 뜻을 루터보다는 강조하기 때문에 전술한 “불가견적 교회” 개념에 대해서는 그 주장이 비교적 약하다고 하겠다.

요약하면 개혁주의 신학은 기독교인이 하나님을 교회 제도적으로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교회의 일원으로 살면서 그것에 합당한 생활 원리, 즉 그리스도의 지배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면서도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타날 수 있도록 스스로 애쓰는 생활 원리를 터득하여, 그것으로서 국가 속에서도 열심히 일하면서 그 결과가 국가 사회적인 제도적 차원에서의 올바른 기여를 하고 그로 인해 국가 자체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국가가 되기를 희망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인이 국가 속에서 금욕의 정신으로 근면하면서 산다는 점에 있어서 루터의 소명 이론을 그대로 수용한다. 그러나 국가와 교회를 다분히 “두 개의 왕국”으로 여기는 루터와는 달리 근면이 국가에서 제도

적 차원으로도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그 국가 제도에 대해 단정적인 결론을 교인 스스로가 내릴 수는 없다.

2. 개혁주의 신학이 서구 문화에 미친 영향

개혁주의 신앙인의, 사회 속의 삶에 있어서의 근면은 그의 경제 활동에서의 성실함으로 나타나고 경제적인 생산에 많은 합리적인 기여를 했다. 또한 신자의 그와 같은 경제적인 활동이 국가 제도적 차원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에 기독교인은 산업의 국가적인 차원에 관심을 두면서 자연스럽게 소위 자본주의적 국가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Weber의 주장대로 자본주의의 국가는 합리적이며 창의적인 생산의 노력을 하면서 국가를 제도적으로 유지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관료(officer)들에 의해 지탱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런 관료의 일을 진정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개혁주의적 직분을 가진 자들일 뿐이라는 것이다. 즉 관료직을 수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세워 주신 자리에서 자신의 일을 하나님에게서 맡는 일로 생각하면서 그 일을 통해 성실하고 합리적이며 창의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에게 봉사하는 결과를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런 개혁주의 신앙의 직분자들이 근간이 되어 생산을

이루면서 그것을 국가 제도적 차원으로 연장시키게 될 때에 가장 바람직한 자본주의의 국가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현대에 오면서 생산의 기술은 발전했어도 가장 중요한 직분자의 정신은 세속화로 인해 사라졌다. 그럴 때 자본주의의 국가는 하나님과 이웃을 위한 봉사의 장소가 아니고 생산을 통해 창출되는 부가 가치를 서로 자기들의 유익으로 환원시키려는 이익 집단들의 투쟁의 장소화되어져 가고 있다. 이런 투쟁적인 혼란을 극복해 보고자 맑스주의는 자본주의 국가 자체를 없이하려고 했으나 오히려 현대의 전반적 추세는 자본주의 국가 이상 더 훌륭한 국가 제도는 찾기 힘들다는 결론을 얻어 간다. 그래도 성경적 직분 의식이 사라진 현재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익 집단적 투쟁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것은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 투쟁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름대로 자본주의를 유지하고자 직분자의 의식이 다분히 강제적으로라도 지니어질 수 있도록 관료 제도를 제도적으로 도입하여 직분의 "자리"(office)를 제도로서 정하고 그 자리에서는 직분자가 억지로라도, 가식적으로라도 직분자답게 일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물론 그런 관료주의도 인간 자신을 진정한 성경적 의미의 직분자로 바꾸거나 바뀌도록 요구할 수는 없다. 단지 직분자들로 하여금 바람직한 직분자 상을 생각하

면서 그 자리에 있을 동안만은 직분자인 것처럼 행하도록 할 뿐이다.

이것은 성경적인 직분관의 세속화된 형태이며 이런 직분자들은 이익 집단들이 부딪치는 사회 속에서 국가적인 다스림을 행하는 자들이므로 그들의 다스림의 정당성의 문제(Legitimations problem)가 국민들에 의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즉 자기 이익 추구적인 사회 속에서 그 아무도 다른 그 누구를 그 정당성에 대한 물음 없이 자신을 다스리는 관료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다. 사실, 그 정당성의 문제야말로 모두가 자기 이익적 사고를 포기하지 않는 한 완전히는 해결할 수 없는 현대 산업 사회의 고질적 문제이다. 즉 어떤 국민도 쉽게 관료의 정당성을 무조건적인 직분자인 것처럼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으며 어떠한 관료들도 자기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지 않는 사람은 없으면서도 모두에게 그 주장을 수긍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이 분명 서구 문화 형성에 있어서의 최대의 산물이라고 할 자본주의에 결

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지만 오늘날은 세속화로 인해 그 영향이 정지되어 오히려 그 자본주의에는 온갖 문제가 나타남을 보았다. 이걸 서구 문화의 좋은 점, 나쁜 점을 함께 겪고 있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우리 개혁 신앙인들은 다시금 바른 영향을 미쳐 우리 사회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즉 종교 개혁시에 올바른 직분관을 가지고 헌신하던 개혁주의 신앙인들이 원했거나 아니 원했거나 인류에 공헌하는 면이 그 반대 경우보다 많다고 할 자본주의 형성에 기여함으로써 개혁주의 신학적 사명을 했다면, 오늘날은 우리 개혁 신앙인들이 세속화된 산업 사회에서의 끝없는 이익 집단들 사이의 갈등 속에 들어가서 자기 유익 추구가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한 희생과 봉사의 노력이 문제 해결의 관건임을 보임으로써 현대적 의미의 개혁주의 신학의 사명과 과제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즉 옛날에 서구 문화에 영향을 미쳤던 개혁주의 신학이 오늘날 세계 문화에 다시금 올바른 영향을 미쳐야 한다는 말이다.

*** 본지(「개혁 신앙」) 정기 구독 안내 ***

- 연간 계절따라 4회 발간
- 구독료 : 1년 2,000 원 (1부는 600 원 - 날권은 가급적 기독교 서점에서 직접 구입 요망)
- 송금 방법 : 온라인 조흥은행 359-6-009858
우체국 010033-0028944
- 연락 주소 : 120-013 서울·서대문구 충정로 3가 3-47
☎ 312-6758·392-4716 개혁주의신행협회
- ※ 송금과 동시 주소, 성명, 금액, 송금 일자, 온라인 편(조흥, 우체국 구분)을 엽서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신청도 환영)